

어떤 이들에게는 예배 때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리스도교 예배 형식을 구질구질하게 여길지 모르겠으나 저는 인간과 구원에 대한 가장 정확한 통찰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9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를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3) 죄 문제의 해결에서 열쇠는 '생명이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7절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고, 9절에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엄청난 발언이라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곧이들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들어도 이런 말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의 제사의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믿었기에 지난 2천 년 동안 매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죄의 원인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분리이며,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든 말은 하나님과의 분리가 해결됨으로써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4) 다시 예수의 피로 돌아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무죄한 자의 죽음을 대표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라고 절규하고 죽었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자로 경험되었다는 사실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토대입니다. 죽기 전의 생명체로 되돌아온 게 아니라 종말에 실현될 미래의 생명으로 변화되었기에 그 어떤 기자도 부활의 주님 앞에 카메라를 들이밀고 인터뷰를 시도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절망했던 제자들이 더는 절망감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미래의 생명에 대한 희망으로 충만했습니다.

5) 무슨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는 이제 '살아있음'의 의미와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원하는 무병장수와 럭셔리한 인생이 '살아있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 생명에 영혼의 눈이 열림으로써 죄로부터 해방되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 생명을 향한 희망으로 충만해진 사람이 왜 위선에 떨어지겠으며, 자기의 영혼만은 순수하다고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그리스도교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생했기에 오늘 본문이 그를 가리켜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로고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멘!

서울샘터 교회 주보

시작일 2008년 12월7일

2024년 4월14일

부활절 셋째 주일
세계 교회력 「나」해 20주

세월호참사 10주기



예배 장소: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53(대방동)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
주일 공동예배: 4시-5시/천교 5시-5시20분/예배 후 모임 5시20분-6시
목사: 정용섭, 박재진, 김동호
홈페이지: <http://dabia.net/xo/churchs>

주 일 공 동 예 배 순 서

개 회 예 전

예배의 부름 ... 목사

오늘 우리는 10년 전 2014년 4월16일 팽목항 앞바다에서 벌어진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일 공동예배를 드리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그 사태는 그 어떤 말로도 설명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찬송 14장 (주 우리 하나님) 1, 2절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창조와 부활의 능력이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허세를 부리는 모든 사람과 이념과 체제와 권력은 피조물의 탄식이라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잠시 세상에 머물다가 사라질 뿐인 것들에게 우리는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기보다 더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당신만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궁극적인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10년 전에 벌어졌던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해주십시오. 그 유족들만이 아니라 다른 이의 불행을 자기 일처럼 공감하는 이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세상 마지막 때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찬송 「국악찬송」 4장 (영광 누리소서) 이은영 곡 ... 다 함께



[알 리 는 말 씀]

- * 예배 후에 오늘의 설교를 주제로 공부모임이 있습니다.
- * 5월 첫 주(5월 5일)는 여성가족재단이 공휴일 대관을 하지 않아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합니다.
- * 세월호 10주기- 올해 4월16일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오늘 예배는 추모의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마음의 치유가 여전히 필요한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 * 온라인 신학 공부- 화요일(4월16일) 밤 8:00-9:00에 '온라인 신학공부'가 유튜브 <정용섭> 채널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이번 강의 제목은 8강 '유신론과 무신론에 관해서'입니다.

* 지난주일(4월7일) 헌금: 495,000원

- 주일헌금 215,000원 통장헌금 280,000원

. 교회 온라인 통장: 국민은행 659002-04-033967 양혜선

* 2024년 4월 예배 위원

날짜	설교	사회/성경봉독	헌금안내	준비위원
4월21일	박재진 목사	김용성 집사	양혜선 집사 이기령 집사	양혜선, 김희란 <시청각실>
4월28일	김동호 목사	최선아 집사	양혜선 집사 이기령 집사	양혜선, 윤혜정 <시청각실>

지난주일(4월 7일) 설교 발췌

제목: 생명의 로고스 (요일 1:1-10)

1)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예수에 대한 물적 경험을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육체로 살았던 분입니다. 제자들은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여행을 다니고 웃고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실제의 삶을 함께 살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지주의의 기본 관점인 영육 이원론은 들어설 여지가 없었습니다.

2) 그리스도교는 영지주의에서 나타나는 영육 이원론의 유혹을 버텼습니다. 육체와 영혼을 구분은 하나 분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 전체가 총체적으로 죄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만 병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죄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에게서는 결코 볼 수 없는 태도입니다.

봉 헌 과 친 교 예 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 1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찬송(주기도) ... 다 함께 (* 악보 별지 참조)

알림 ... 목사

추모 시 낭송 (안상학 시인의 시 '4월16일') 외 1편 ... 이기령 집사

파 송 예 전

*마침 찬송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죄의 고백 ... 다 함께

우리는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고 침묵해야 할 때 오히려 많은 말을 하며, 투쟁해야 할 때 뒤로 물러나고 참아야 할 때 오히려 앞으로 나서곤 했습니다.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남에게는 인색했으며, 자신의 아픔에는 과민했고 남의 아픔에는 둔감했습니다.

*자비의 기도 ... 다 함께

목사: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시 145:9) 자비를 구합니다.

회중: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래의 찬송가를 부른다.)

간절하게 이강민

주 - 여 자 비 를 베 풀 어 주소 서 그리스도 여 자 비 를
베 풀 어 주소 서 주 - - - 여 자 - 비 - 를 베 풀 어 주소 서

*사죄 선포

목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거룩 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상투스) ... 다 함께

거룩 하 - 시 다 거룩 하 - 시 다 거룩 하 시 도 - 다
만군의 주 하 - 나 님 하늘과 땅 - 에 가 - 득한그영광
높은데에 호 - 산 - - - 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 여
찬양 받으 소 - 서 높은데에 호 - 산 - - - 나

*평화 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추모곡 부르기 (내 영혼 바람 되어) 김효근 역시, 곡 ... 다 함께

A Thousands Winds

♩ = 60

그 곳에서 올지 - 마 오 나 거기 없소 나 그곳에
잠 들지 않 - 았다 오 그 곳에서 슬 퍼 - 마 오 나 거기 없소
1. 그 자 리에 잠 든 게 아 니 라 오 나 는 천 의 바 람 이 되 어
2. 이 세 상 을 떠 난 게 아 니 라 오
찬 란 히 빛 나 는 - 빛 되 - 어 꼭 식 영 - 그 는 햇 빛 되 어 하 늘 한 가 을 비 되
어 - 그대 아 침 고 요 히 깨 나 면 - 새 가 되 어 날 아 - 올 라 - 밤 이 되
면 저 하 늘 별 빛 되 어 부 드 럽 게 빛 난 - 다 오 그 곳 에서 올 지 - 마
오 나 거 기 없 소 나 그 곳 에 잠 들 지 않 - 았 다 오 그
곳 에서 슬 퍼 - 마 오 나 거 기 없 소 그 자 리 에 잠 든 게 아 니 라 오 나
거 기 없 소 이 세 상 을 떠 난 게 아 - 니 라 오

말 씀 예 전

설교전기도 ... 다 함께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린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말씀이 허락하는 생명의 광휘에 휩싸여 말씀의 풍요로운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생명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 말씀 사도행전 3:12-19 ... 이유선 집사

성서교독 시편 4:1-8 (새로운 예배 시편 번역) ... 다 함께

의로우신 우리주님 우리기도 들으소서 우리들의 죄없음을 변호하여 주옵시고
-곤란중에 빠졌을때 너그럽게 돌보시며 긍휼은혜 베푸시어 우리기도 들으소서
백성들아 언제까지 주의영광 무시하며 언제까지 헛된일과 거짓찾아 헤매느냐
-주님께서 경건한자 각별하게 사랑하니 우리들의 부르짖음 주님께서 들으시리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시죄를 짓지말라 잠자리에 누워서도 깊이깊이 뉘우치고
-침묵중에 눈물흘려 죄를벗어 버릴지라 의의제사 드리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라
많은이들 나를향해 비웃으며 조롱하니 주님얼굴 이종에게 돌리시어 보이소서
-내마음에 주신기쁨 그모든것 보다크며 평안한잠 주셨으니 우리주님 은혜로다

둘째 말씀 요한일서 3:1-7 ... 이유선 집사

*셋째 말씀 누가복음 24:36(후)-48 ... 이유선 집사

*응답 찬송 644장 (아멘) ... 다 함께

J. Stainer, 1870

아 멘 아 멘 아 멘 아 멘

아멘송

설교 죽은 자 가운데서 ... 김동호 목사

설교후 기도 ... 설교자

찬송 165장 (주님께 영광) ... 다 함께

4월16일

안상학

그날이 이런 날이었구나
여느 때처럼 해가 뜨고 산땡이 울고
햇살도 바르게 아침이 오고 있는 날이었구나
오늘같이 민들레도 피고 애기똥풀도 피고
백합이 꽃대를 기운차게 밀어 올리는 그런 날이었구나
이렇게 꽃이 피고 이렇게 기운이 솟구치는 날이었구나

그런데 그날은 어찌하여
온통 지는 꽃만 눈에 밟혔는지
개나리도 지고 진달래도 지고
벚꽃도 천지사방 떨어지고 떨어져서 흩날리기만 하던지
피다 만 꽃들이 그만 눈을 닫고 입술을 여미며
떨기째 송이째로 통째로 지기만 하던지
지는 꽃만 눈에 밟혀오던지

그날이 사실은 이런 날이었구나
민들레가 꽃으로 피다 못해 별로 피어나는
애기똥풀이 꽃으로 피다 못해 달로 빙그러지는
백합이 철든 아이처럼 내색도 없이 꽃이며 향기를 밀어 올리는
그날도 이렇게 꽃이 피기도 꿈을 꾸기도 하는 날이었겠구나
그날도 분명 이런 날이었겠구나
이런 날에 꽃잎 무덕무덕 떨어져 더욱
그래서 더욱 서러운 날이었겠구나

*안상학 시인은 1962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서 1988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1987年 11월 新川’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는데, 지금도 안동에 산다.
*함민복 시인은 1962년 충북 충주에서 태어나서 1988년 세계의 문학 ‘성선설’로
등단했으며, 지금은 강화도에 산다.

숨쉬기도 미안한 사월

함민복

배가 더 기울까봐 끝까지
쫓아오르는 쪽을 누르고 있으려
옷장에 매달려서도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을 믿으며
나 혼자를 버리고
다같이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갈등을 물리쳤을, 공포로 견디었을
바보같이 착한 생명들아!
이학년들아!

그대들 앞에
이런 어처구니없음을 가능케 한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시간은, 우리들의 세월은.
침묵도, 반성도 부끄러운
죄다.

쏟아져 들어오는 갸름한 물을 밀어냈을
가려진 손가락들
나는 괜찮다고 바깥세상을 안심시켜주던,
가족들 목소리가 여운으로 남은
핸드폰을 다급히 품고
물속에서 마지막으로 불려보았을
공기방울 글씨
엄마,
아빠,
사랑해!

아, 이 공기, 숨쉬기도 미안한 세월